

자 기 소 개 서

소 속	○ ○ 고등학교	직 위	교감	성 명	○ ○ ○
-----	----------	-----	----	-----	-------

1

어린 시절 성장기

가난한 시골, 어릴 때부터 땀나뭇을 베어와 소죽을 끓이고, 정겨운 시골의 향기를 맡으며 초등 학교와 중학교를 보내고, 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어려운 살림에 변변한 자취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매일 비좁은 버스 통학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모습을 항상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을 잘 키우시려고 참 많이도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때 밥상머리에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셨던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칭송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맞서며, 강한 의지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

교사로서의 성장과 교직생활시작

학교생활에서 수학교과에 특별한 관심과 자신감이 있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가르치시던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1988년 9월 1일 진해종합고등학교(현 웅천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웅천고는 그 당시에도 학년별 토목과 1개 학급을 포함하여 3학년이 여섯 반, 1·2학년은 각각 다섯 반에 전교생이 800여 명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한 번도 온 적 없던 웅천에서 저의 교직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저는 학교 앞에 방을 얻어 3년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첫 교직생활은 선배 교사들의 배려와 지역 주민들의 후한 인심 덕분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년 또는 2년이면 진해시내 학교나 인근 마산으로 전근 갈 때였지만 저는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애착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초 발령이라 이듬 해부터 담임을 하였는데, 89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1학년 입학 때부터 3학년 졸업 때까지 담임을 맡아 3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때의 제자들은 어느덧 50세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웅천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지금의 교직원과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교육전문사로서의 역량을 키움

● 수업과 진로진학의 전문가가 되다.

저는 교사로 29년과 교감으로 4년, 총 33년을 일반고(인문계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교사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실력 없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

는 일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의 담임 경력의 반 이상은 고3 담임이고, 학년부장, 특히 3학년 담임과 학년부장을 맡아 학생이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자 아침 7시부터 밤10까지 근무는 기본이고, 11시나 12시까지 학습의욕이 강한 학생들의 야간수업과 자율학습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진학시키기 힘들다고 하는 SKY대학, 의과대학, 사관학교 진학 등 정말 다양하게 학생이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며 노력에 따른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는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고, 학생들의 특기와 진로적성에 맞는 진학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진로진학 강의를 하는 등 진로진학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연합모의고사 수학과 출제위원, 교과서 검토위원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조언하는 수학교과교육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선봉에 서다.

저는 2000년 경상남도 특별연구교사로서 우리나라 초중등 영재교육의 시작부터 영재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초기 전국 3개 대학에서 영재교육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영재들을 선발하여 경남대영재교육원에서 초등과 중등영재들을 가르치면서 영재교육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영재교육을 계기로 대학원 수학교과교육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경남대영재교육원, 김해교육지원청영재원, 창녕교육지원청 영재원에서 수학교과영재교육 12년 및 발명영재교육 2년을 합쳐 14년 동안 영재교육에 몸담으며 주말과 방학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4

학교관리자교서의 역량을 키우다

2017년 9월 1일자 교감으로 승진하여 진영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시절부터 담임, 학년부장, 정보부장, 연구부장, 교무부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실무 능력과 연구활동, 현장수업능력을 고루 갖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감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학교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혁신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다.

교사의 역량은 수업과 인성교육으로 나타나고, 수업의 혁신이 학교를 바꾸며, 항상 연구하고 가르침에 있어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시절 수업연구대회에 나가 입상한 경력과 수업연구대회 심사를 하면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접하고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배움중심 수업과 수업 나눔 등 수업혁신을 위해 교감으로서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업컨설팅터를 섭외하여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분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대비 등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교과선택이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학생 진로진학설명회, 진로캠프, 학부모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소통하고 화합하는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다.**

저는 동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원체육을 통해 서로 어울려 땀을 흘리면서 교감하면 평소에 하기 어려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열려있는 교감실 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행사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

이런 교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지구환경은 너무도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웅천지역의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웅천고는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 합니다. 학교 시설환경의 보완 및 확충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학생들의 복지,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연계 등 다양한 문제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실행,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및 배움중심수업 지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준비,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다양한 지원,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및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과 편리한 학생복지 환경 구축,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력향상 방안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웅천고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교육에 잘 적응해 나가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학교! 제가 교직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곳 웅천고! 정말 소중한 이곳에서 마지막 교직생활을 따뜻하고 겸손하며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학교를 경영하여 멋진 교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